

## 유라시아의 민주주의: 통합적 설명모형의 모색과 색채혁명

엄 구 호\*

I. 서론	통합모형 도출
II. 유라시아의 정치체제 특성과 민주화 진단	IV. 색채혁명의 설명 V. 결론
III. 유라시아 민주화 설명의 이론 평가: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첫째,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특성인 불완전 민주주의가 현실정치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기존 연구는 이행론이 기초한 행위자적 접근과 근대화 가설이 기초한 구조적 접근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각 접근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통합적 사고의 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유라시아에서 나타나는 민주화 방식은 동구의 엘리트 간 합의 방식보다는 혁명 방식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집단행동의 과정 설명과 민주화 설명의 이론적 틀이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민주화의 단계와 체제 성격을 연계하여 유라시아의 민주화를 진단 및 유형화하고, 둘째, 기존의 방대한 유라시아

민주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색채혁명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모색하며, 셋째,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 기초해서 유라시아의 민주화와 색채혁명을 평가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조적 접근과 행위자적 접근의 통합 접근과 색채혁명의 추세-도구-촉발모형의 결합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모형은 매우 유연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조적 변수와 행위자적 변수가 매우 다양하며 유라시아의 상황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변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유라시아, 러시아, 민주주의, 민주화, 색채혁명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러시아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법학 박사.

저서 및 논문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27집 3호: 181-220 (2009) 외.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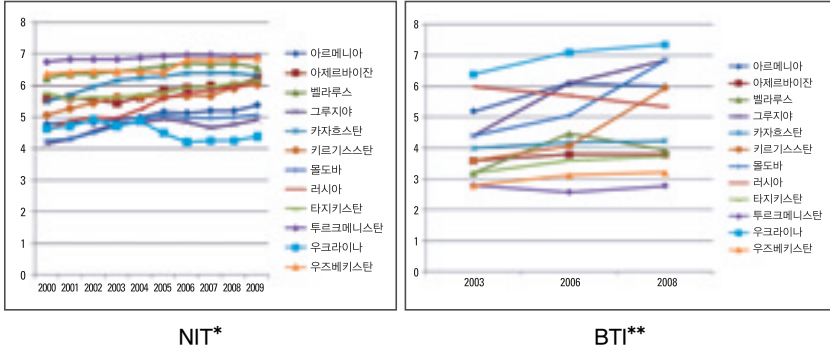
유라시아의 민주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유라시아의 지리적 범주를 정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유라시아’는 좁게는 동유럽과 러시아 자체를 제외한 우크라이나(Ukraine), 카프카스(Kavkaz), 중앙아시아만을 지칭하는 개념이자, 넓게는 구소련방의 구성공화국(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및 발트 3국), 중·동유럽,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개념이었다. 또한 이들 지역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의 부재와 유라시아 개념 자체의 유동성 때문에 최근의 지역연구에서는 이 지역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혹은 ‘포스트공산주의 사회’ 등 정치 체제전환의 맥락에서 명칭을 정하기도 한다. 이는 전환기라는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성으로서의 소비에트의 유산을 지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협소함과 시각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한 최근 러시아에서 대두되는 유라시아주의운동에서의 유라시아 개념은 표면적으로 다양한 민족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이념을 설파함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유라시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리·역사·사회·문화적으로 전일적 공간의 재건에서 러시아(슬라브)중심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개별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계와 민족적·국가적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거 소련의 영향권 국가 중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한 중·동유럽 국가들과 종교와 민족의 상이성이 너무 큰 발트 3국(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을 제외한 12개 과거 구소련공화국을 포함하는 지역을 유라시아 지역으로 정의하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소지역화 현상을 고려하여 유라시아는 가장 중심국인 러시아와 슬라브 민족이 중심

이 되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Belarus), 몰도바(Moldova) 등 서 CIS, 그리고 그루지야(Georgia),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으로 구성되는 남카프카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Kazakh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등 중앙아시아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런 분류는 최근 USAID(미국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Freedom House 등 많은 국제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유라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불안정하며 1990년대 이후 정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USAID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통치 지수”를 보면 12개 유라시아 국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1.96점에 불과하며, 민주화의 수준이 가장 낮은 중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2.18점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이 가장 뒤쳐진 지역으로 알려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2.26점보다도 낮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의 소위 민주화의 제3파동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라지고, 유라시아 지역의 민주화는 정체되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권위주의로의 회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Freedom House의 ‘전환국 민주화 지수(Nations in Transition, 이하 NIT)’와 베텔스만(Bertelsmann) 재단의 ‘민주화 지수(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이러한 정체상태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툴립혁명 등 일련의 소위 색채혁명은 유라시아에 민주주의의 확산을 새롭게 기대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세 국가의 민주화 지수 역시 혁명 후에도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그루지야와 키르기스스탄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유라시아의 민주주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림 1〉 NIT와 BTI의 연도별 민주화 지수



주: \* NIT는 선거과정, 시민사회, 언론독립, 중앙정부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민주적 거버넌스, 법적 틀과 독립성, 부패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그 평균점으로 민주화 지수를 산출하며, 각 항목은 7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민주적임.

\*\* BTI는 국가성, 정치참여, 법치, 제도안정성, 정치사회통합 등 6개 항목을 평가하여 그 평균점으로 민주화 지수를 산출하며, 각 항목은 1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임.

이 글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흔히 유라시아 국가들을 민주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아닌 회색지대 또는 합성체제(hybrid regime)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합성체제의 민주화 연구는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 연구와 구별되어야 한다. 유라시아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많은 용어들 가운데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sup>1)</sup> 부분 민주주의(partial democracy),<sup>2)</sup>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sup>3)</sup> 등 용어의 공통점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당제와 선거경쟁 같은 외관상의 민주적 정치제도가 권위주의 지배의 현실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Diamond, 2002).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웨이(Lucan Way)가 지적하듯이 불완전 민주주의가 현실정치에서 비민주체제로 안정화되었을 때, 불완전 또는 전환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다루는 것은

1) McFaul(2001)과 Bunce(2003)가 대표적.  
 2) Robinson(2003)과 Treisman(2002)이 대표적.  
 3) Colton and McFaul(2003)과 Rutland(2004)가 대표적.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Levitsky and Way, 2002).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안정적 비민주주의 또는 반(半)민주주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반(半)독재 또는 합성체제가 완전한 독재보다는 민주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빗나가게 해서 독재체제보다 더 순수 민주화를 방해할 수 있다.

둘째, 유라시아 민주화에 대한 방대한 기존 연구는 이행론(transitology)이 기초한 행위자적 접근과 근대화 가설이 기초한 구조적 접근으로 대별해볼 수 있는데, 각 접근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통합적 사고의 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유라시아에서 나타나는 민주화 방식은 동구의 엘리트 간 합의(pact) 방식보다는 혁명 방식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집단행동의 과정 설명과 민주화 설명의 이론적 틀이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민주화의 단계와 체제 성격을 연계하여 유라시아의 민주화를 진단 및 유형화하고, 둘째, 기존의 방대한 유라시아 민주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색채혁명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모색하며, 셋째, 이러한 이론적 모형에 기초해서 유라시아의 민주화와 색채혁명을 평가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Ⅱ. 유라시아의 정치체제 특성과 민주화 진단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와 추세를 분석하여 유라시아 국가들을 분류해 보는 일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우선 국제적 기관들의 평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민주화 평가 지수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Freedom House(NIT), 베텔스만 재단(BTI),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를 꼽을 수 있다.

위의 세 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것이 <표 1>이다. 합성체제의 범주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는 민주적 돌파는 하였으나 아직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지 못한 수준으로 유라시아에서는 민주화 수준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은 합성체제 수준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국가로 분류된다고 보는 것이 세 기관의 대체적인 결론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인데, 키르기스스탄은 색채혁명을 거치긴 했지만 혁명 후의 상황에 대해 NIT는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의 경우는 옐친(Борис Ельцин(Boris Yeltsin))체제와 비교했을 때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Vladimir Putin))-메드베데프(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Dmitry Medvedev))체제의 권위주의의 복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양국을 합성체제 분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주요 기관의 유라시아 민주주의 평가

	공고화된 민주주의	반공고화된 민주주의	이행정부 또는 합성체제	반공고화된 권위주의	공고화된 권위주의
NIT	-	-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BTI	고도 선진 민주주의국	선진 민주주의국	제한된 민주주의국	매우 제한된 민주주의국	폐쇄국
	-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IU	완전 민주주의	결함 민주주의	합성체제	권위주의	
	-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위 세 기관의 지수는 체제전환국들의 민주화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Freedom House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색채혁명을 겪은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를 합성체제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권위주의적 국가로 보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장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관한 평가가 매우 인색하여 몰도바와 아르메니아까지를 제외하고는 최소 민주주의도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세 기관의 평가를 보면 너무 나열적인 기준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든다. 헬드(David Held)는 민주화 이론을 슈umper터(Joseph Schumpeter)의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달(Robert Dahl)의 다원주의모형(poliarchy)의 두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Held, 1996), 전자는 경쟁성만을 후자는 경쟁성과 참여의 두 차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도넬(Guillermo O'Donnell)의 최소(절차) 민주주의와 최대(실질적) 민주주의 분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자유경쟁 선거를 통해 권력교체가 가능하다면 최소 민주주의는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절차적 최소라 함은 첫째, 공정한 정기 선거, 둘째, 완전한 참정권 보장, 셋째, 시민자유와 광범한 보장, 넷째, 선거를 통하지 않은 왕정, 군이나 종교기관 같은 수호기관 부재의 4가지 주요 속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iamond, 1999: 7-15). 이러한 수직적 책임이 담보된 후에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력,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성,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 등 정부의 수평적 책임이 담보되는 단계가 필요하며, 이것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된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국가의 민주주의를 이러한 수직적 책임과 수평적 책임의 2단계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평가함에 있어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 성격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유라시아 국가의 경우는 불완전 민주주의 중에서 선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평적 책임이 담보되기 어려운 선거 민주주의 국가의 성격을 보인다고 한다. 유라시아 국

가들의 정치체제를 넓은 의미에서는 합성체제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성체제 중에는 전술한 절차적 최소가 외관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요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체제도 포함되어 있다. 경쟁적 권위주의체제(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란 공식적인 민주제도가 권력획득의 1차 수단으로 생각되지만, 시민자유 침해, 국가와 언론자원의 남용이 심해서 실질적으로는 민주적 체제라고 보기 어려운 문민체제를 말한다. 외관상 야당이 권력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매우 불공정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위적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현실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불공정한 것이다(Levitsky and Way, 2006).

또한 민주주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요소뿐만 아니라 효과적 국가 요소와 법치의 결합인 법치국가(rechtsstaat)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Bogaards, 2004). 법치는 민주화의 필수적인 상대물이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유라시아의 경우 법치의 공고화 없이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과 정부 모두 비공식 네트워크와 관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번번이 법치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 국가의 민주화 평가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전술했듯이 최소 민주주의는 자유공정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당의석 비율이 100%인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의심할 바 없는 권위주의체제이다. 이들은 선거공정성 지수(선거과정 평가 점수)도 각각 2.58점, 0.08점, 0점이며, 최소 민주주의 요소인 시민자유 점수도 각각 6점, 7점, 7점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선거공정성 지수는 1.83점밖에 되지 않고 여당의석 비율은 81%, 시민자유 점수도 5점이나 된다. 라흐몬(Рахмон Набиев (Rahmon Nabiyev)) 대통령이 1994년 이후 16년이나 장기집권하고 있으며,

〈표 2〉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 특성

	수직적 책임(절차적 최소)			수평적 책임(민주주의 공고화)				거버넌스의 질
	선거과정 <sup>1)</sup> *	여당의석 비율 (%) <sup>1)</sup>	시민자유 <sup>2)</sup> <sup>1)</sup>	의회파워 지수 <sup>3)</sup> <sup>1)</sup>	사법부 독립성 <sup>4)</sup> <sup>1)</sup>	언론자유 <sup>5)</sup> <sup>1)</sup>	NGO 지속가능성 <sup>6)</sup> <sup>1)</sup>	부패 <sup>7)</sup> <sup>1)</sup>
러시아	5.25	70.0	4	0.44	2.7	60.88	4.4	2.2
우크라이나	9.58	50.7	2	0.50	2.1	22.00	3.6	2.2
벨라루스	2.58	100.0	6	0.28	-	59.50	6.0	2.4
몰도바	9.17	47.5	4	0.72	2.8	33.75	4.2	3.3
그루지야	7.00	79.3	4	0.59	2.7	18.63	4.2	4.1
아르메니아	4.33	81.7	4	0.53	2.3	31.13	4.0	2.7
아제르바이잔	3.08	44.8	5	0.44	3.9	53.50	4.8	2.3
카자흐스탄	2.67	91.6	5	0.31	3.1	49.67	4.0	2.7
우즈베키스탄	0.08	100.0 (사실상)	7	0.28	-	67.67	5.7	1.7
키르기스스탄	4.83	78.9	4	0.41	2.3	40.00	4.1	1.9
타지키스탄	1.83	81.0	5	0.41	3.3	32.00	4.9	2.0
투르크메니스탄	0.00	100.0	7	-	-	107.00	5.7	1.8

주: 1) 선거과정은 TIU의 민주화 지수 중 2008년의 선거과정 평가 점수이며, 1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 수록 민주적임.

2) 시민자유는 Freedom House의 세계 자유 지수 중 시민자유(civil liberties)에 관한 2009년 점수로, 7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시민자유가 큰 것을 의미함.

3) 의회파워 지수는 Fish(2006) 참조, 1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파워가 있음.

4) 사법부 독립성은 World Economic Forum(2009) 중 사법부 독립성 점수로, 7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임.

5) 언론자유는 17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의 2009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큰 것을 의미함.

6)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지속가능성은 USAID가 NGO의 법적 환경, 조직 능력, 재정, 지도도, 서비스 공급, 인프라, 공공 이미지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점수로 7점 만점에 1-3점은 공고화, 3-5점은 중간단계, 5-7점은 초기단계임을 의미함.

7) 부패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09년 부패지각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이며, 10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는 것을 의미함.

\* ↑: 점수가 높을수록, ↓: 점수가 낮을수록 보다 민주적임.

1999년 대통령 임기 연장, 2006년 3선 등을 한 점도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의회파워 지수가 0.41점으로 전술한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는 조금 높고, 특히 사법부 독립성이 조사 대상 133개국 중 러시아는 116위, 우크라이나는 123위인데 반해 65위이며, 언론자유도 175개국 중 113위로 유라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감안할 때 경쟁적 권위주의 국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여당의석 비율이 91.6%나 되고, 선거공정성 지수도 2.67점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에 가깝다. 실제로 나자르바예프(Нурсултан Назарбаев(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고 있고, 대통령 일가가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역시 권위주의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자세습의 대선을 치룬 아제르바이잔도 절차적 최소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은 선거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만 유라시아에서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 수평적 책임에 해당하는 의회파워 지수, 사법부 독립성, 언론자유, NGO 지속가능성이 모두 약간 부정적 평가여서 경쟁적 권위주의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선거과정 평가 점수가 매우 높고 시민자유 지수도 높은 편이어서 절차적 최소는 통과하였고, 수평적 책임에 해당하는 의회파워 지수, 사법부 독립성, 언론자유, NGO 지속가능성이 유라시아 국가들 중에는 높은 편이며 특히 거버넌스의 질을 나타내는 투명성에서

〈표 3〉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

자유 민주주의	불완전 민주주의	경쟁적 권위주의	완전 권위주의
-	그루지야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도 유라시아 국가 중에는 높은 편이어서 불완전 민주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Ⅲ. 유라시아 민주화 설명의 이론 평가: 통합모형 도출

유라시아 민주화에 관한 방대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해보는 일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색채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모색해 보는 시각에서 평가 작업을 시도해 볼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이 글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색채혁명도 혁명이므로 대중의 집단행동 또는 혁명 발생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할 것인가? 둘째, 기존의 민주적 체제전환 연구를 행위자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으로 대별해 볼 때 유라시아 민주화 연구에는 어떠한 접근이 더 타당하며, 만일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색채혁명에는 타당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는가?

유라시아의 민주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동구와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화 연구와 함께 동구에서 보여준 엘리트 간 합의(pact)에 의한 민주화가 아닌 집단행동에 의한 혁명이라는 점에서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일견 매우 타당해 보인다.

우선 집단행동의 이론에서 색채혁명을 조망하고자 한다면 올슨(Mancur Olson)의 집단행동이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해 소규모 집단들은 대면적 거래와 연관된 심리적·사회적 압력으로 대규모 집단보다 집단행동 문제 주변에 더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Olson, 1971). 그러나 올슨의 연구는 두 가지 이유로 그루지야나 우크라이나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국가들에서 일어난 저항은 대규모인 편이어서 올슨이 제시하는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둘째, 올슨

의 집단행동은 이익집단 가입을 주로 다루는 이론이어서 조직과 영속성에서 이익집단과 다른 색채혁명 같은 정치적 저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Nissen, 2006). 집단행동 연구에서 주목할 다른 연구는 태로우(Sidney Tarrow)의 저항사이클 연구와 보쉬켄(Herman L. Boschken)의 저항행동 논리 연구이다(Tarrow, 1998). 태로우의 저항사이클 이론의 내용은 자기이익추구 엘리트들이 정치질서를 변화시킴으로써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다음 단계에는 국가권력 내 엘리트와 함께 피지배집단들은 반대할 목표를 갖고 밀고 당기기 시작하고, 결국 이 갈등은 파워 역학의 단절을 가져와 새로운 질서의 요구가 이루어져 다른 엘리트 집단들이 권력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쉬켄은 소수자들은 법적으로 정부 의사결정에 접근하는 것이 실패하면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저항행동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Boschken, 1975). 그러나 이들의 이론도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장미혁명과 오렌지혁명이 거의 유사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태로우와 보쉬켄의 저항운동의 타임 프레임은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사건들보다는 훨씬 긴 시간을 이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각은 과정지향적 사회 동원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논리는 정부에 대한 느리고 지속적인 불만과 이로 인한 작은 규모의 저항 또는 시민 불복종에 더 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집단행동 이론들은 위에서 설명한 이론들이 갖는 문제인 시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쿠란(Kuran, 1991), 우드와 도안(Wood and Doan, 2003)의 이론들은 집단행동의 개시를 설명하기 위해 문턱 또는 시점(tipping point)에 주목한다. 기본적으로 이 이론들은 집단행동은 충분한 사람들이 미행동의 비용이 행동의 비용보다 크고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행동하도록 한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고 본다. 이런 유형의 설명은 집단행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단지 몇 사람들의 입장의 전환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소위 '폭포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론을

들끓게 할 이슈가 생긴다면 짧은 시간에도 저항행동이 쉽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도 색채혁명에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이들 이론은 혁명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이론들에서 한 개인의 행동은 개인 자신의 개인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기억과 진실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사건은 동일한 촉발제 즉 부정선거를 통해 발생하였다. 선거 후 양 혁명이 발생한 것이 우연일 수 있지만 자유·공정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실패가 문턱이나 시점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 같다. 요약하면 사회 동원화 이론만으로 색채혁명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기존의 민주적 체제전환 연구를 행위자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으로 대별해 볼 때 유라시아 민주화 연구에는 어떠한 접근이 더 타당하며, 만일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색채혁명에 타당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동구에서 엘리트 간 합의가 민주화의 보편적 행태였듯이 색채혁명이 유라시아의 민주화의 보편적 행태라면, 기존의 체제전환국 민주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적실한 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구조적 접근은 근대화 가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발전이나 근대화가 민주화를 결과한다는 것이다.<sup>4)</sup> 구조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은 교육의 증가와 중산층의 확대를 가져와, 민주적 정치관용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부의 상대적 평등분배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기초를 제공하는 국가의 민주화나(Chen and Feng, 1999) 계급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민주화(Huber and Rueschemeyer et al., 1993)에서

4)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연구로는 Lipset(1959), Przeworski and Alvarez et als.(1996), Putnam(1993) 참조.

는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약하다. 경제발전 외에 중요한 구조적 요인은 사회 구조적 요인인 사회자본이다. 퍼트넘(Robert D. Putnam)은 민주화에서는 시민기관의 수와 시민사회 역사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라시아 같은 체제전환국들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집단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능률적인 도구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비공동체적 사회자본과 정파주의적 네트워크는 제도화를 방해하는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Aberg, 2000). 경제발전이나 사회자본과 민주화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그 적실성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지역에 이 두 요인이 적용되기 어려운 연구 기술상의 문제는 공통의 소비에트 역사로 인해 유사한 유산을 물려받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요인의 차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구조적 접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조적 요인은 정치제도적 특성 요인이다. 민주화와 관련된 정치제도적 특성 요인은 민주화 이전의 정치권력 구조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정치제도적 특성 등 두 가지이다. 우선 민주화 직전의 정치권력 구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과거의 정치권력 구조는 현재의 정부와 야당 사이의 상대적 권력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양자의 상대적 권력이 균등한 상황에서만 민주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 이전의 정치권력 구조에 관심을 두는 이론은 행위자적 접근과도 상통하고 있다(Swaminathan, 1999). 그러나 유라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화 직전의 정치권력 구조가 유사했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

한편 민주화 과정의 정치제도적 특성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주로 민주화 과정의 정치제도적 특성관련 변수를 군집화시켜 그 특성을 발견하려 한다.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민주적 돌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린츠(Linz, 1994)의 연구나 다당제가 민주적 돌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르토리(Sartori, 1994)의 연구가 정치제도적 접근의 기초이며, 최근에는 레입하트(Lijphart, 1999)의 민주주의 유형 연구를 체제전환국에 적용해 보려는 시

도들이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은 아직 제도가 미성숙하고 제도의 외관과 실질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그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16개 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포틴(Jessica Fortin)의 연구에서도 명확한 연결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동구보다 제도화가 뒤진 유라시아에의 적용은 더 어려울 것이다(Fortin, 2004).

이제 행위자적 접근을 살펴본다. 이행론은 행위자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행위자적 접근을 한마디로 하면 “민주화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다. 오도넬과 슈미터(Phillippe C. Schmitter)는 민주주의는 통일과 합의보다는 교착과 의견불일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러스토우(Rustow, 1970)의 생각을 받아들여 ‘합의에 의한 이행(pacted transitions)’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합의에 의한 이행은 권위주의체제와 민주적 반대세력 사이의 협상에 의한 타협을 의미한다(O’Donnell and Schmitter, 1986: 38). 쉘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제 내 긴장과 반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민주 전환의 가장 큰 역설은 권위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이후에 새로운 민주규칙하에서 권력을 경쟁할 집단들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는 전환의 타협을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제도적 장애로 보았다(Przeworski, 1991).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초기에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동일한 조건이 공고화 단계에서는 부정적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특히 엘리트)이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인식하며, 민주주의가 정치의 유일한 게임방식이 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Linz and Stepan, 1996).

행위자적 접근에서는 독재정부와 민주 야당 사이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고, 전환과정을 타협의 과정으로 보며, 또한 민주 전환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불확실성에 초점을 둔다. 불확실성은 민주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전략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맥락에서 불확실성과 불완전 정보하의 민주 전환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는 데 특히 유용한 게임이론이 접목되기도

한다.

행위자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제도의 특성에서 체제의 발생과 안정성에 대한 설명을 찾는다. 먼저 게이츠(Scott Gates) 등은 체제 안정성의 주요 결정요소로서 제도 응집성(institutional coherence)을 주장했다(Gates and Hegre et als., 2006). 그들에 따르면 제도가 내부적으로 응집성 있는 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며 반면에 합성체제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한다. 골드스톤(Jack A. Goldstone) 등의 연구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Goldstone and Bates et als., 2005). 그들은 정파적(factional) 정치경쟁과 집행부 충원을 위한 상대적으로 공개적인 절차의 조합이 정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 이론은 그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민주화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에서는 과거 엘리트와 현 엘리트 사이에 합의의 가능성이 없어 보임은 물론, 진정한 경쟁이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많은 학자들은 구조적 접근과 행위자적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행위자의 유인을 형성하고 그들의 선호를 구조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시적 수준에서 독재세력과 민주세력 사이의 상호작용이 민주 전환의 기회에 영향을 주는 정치 동학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Kugler and Feng, 1999),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행동이 만들어낸 중범위적 차원의 정부 능력과 체제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마호니(James Mahoney)와 스나이더(Richard Snyder)의 ‘인과성 깔때기(funnel of causality)’를 들 수 있고,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헤일(Henry E. Hale)의 체제사이클모형을 들 수 있다.

마호니와 스나이더의 통합 접근은 일차 설명변수로 이행을 만드는 행위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사용한다. 이들은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es)과

자발적 접근(voluntarist approaches)을 연결하여 구조적 접근은 유일한 설명변수로서 시간에 뒤쳐져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자발적 접근은 전환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또한 게임이론을 접목해서 행위자의 선호를 결정하기 위해 구조적 변수를 사용하고, 게임규칙을 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인을 사용한다.

한편 헤일의 체제사이클 연구도 행위자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을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행위자적 접근이 엘리트 통합(unity)을 주요 설명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라시아에서처럼 엘리트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매우 통합된 것으로 보이고 다음 순간에는 분열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구조적 접근에 관해서도 유사한 소비에트 유산을 가진 유라시아에서 일부 국가는 색채혁명을 경험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왜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Hale, 2005). 따라서 헤일은 통합적 시각에서 엘리트 행태의 제도적 분석에 집단행동의 논리를 도입하고, 포스트소비에트에서 공통적인 특정 제도 집합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주요 정치엘리트들은 주로 경력 안전과 지위 유지 또는 상승 욕구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엘리트들의 행태를 담은 제도적 틀로 후견 대통령제(patronal presidentialism)를 제시한다. 후견 대통령제의 특징은 첫째,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다른 국가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공식권력이 부여되고, 둘째, 대통령은 또한 국가와 경제의 교차점에서 광범한 후견인-피후견인 관계에 기초한 높은 정도의 비공식 권력을 휘두른다. 따라서 후견이라는 용어는 자원의 선별적 이전을 통한 정치적 권한의 행사를 가리킨다.<sup>5)</sup> 대통령은 의사결정을 집행하고 선거에서 이

5) 그는 '후견적(patronal)'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인 '체습적(patrimonial)' 또는 '신세습적(neopatrimonial)'이란 용어 대신에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후자는 선별적인 물질적 교환뿐만 아니라 확장된 인척(kinship), 영토, 전통에 뿌리를 둔 강한 집착에 의한 권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착(attachment)에 기초한 네트워크는 순수한 후견적 네트워크보다 안정적이고 여기서 설명된 동학에 덜 민

기기 위해 엘리트들에 의존하며, 엘리트들은 그들의 지위보존을 대통령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엘리트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후견 대통령은 엘리트들을 분할 통치하고 정적들에 비해 정치적 자원의 측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의 인기와 능력에 따라 엘리트들의 계산은 달라지고, 이것이 체제변화의 양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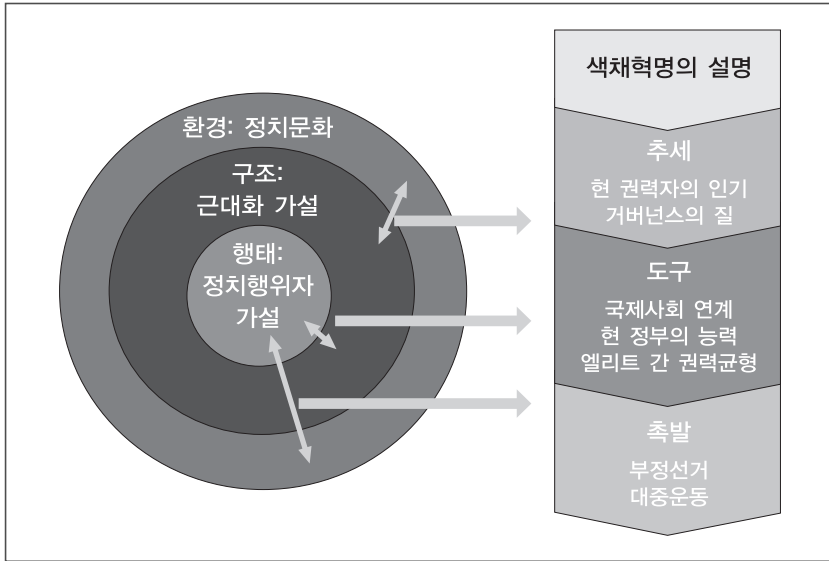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주화 이론과 추세-도구-촉발이라는 색채혁명 과정론을 통합하는 설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 구조적 요인은 주로 장기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역동성은 주로 색채혁명의 도구가 된다. 다만 헤일의 입장과 유사하게 행위자 간 상호작용도 국가 능력, 국제영향력과 같은 중범위적 차원의 변수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비공식 구조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 근대화 가설과 정치제도적 설명을 제공하는 구조 그리고 엘리트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자 가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만들어 내는 변수를 색채혁명의 추세-도구-촉발이라는 과정에 대비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색채혁명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추세'는 결국 현 권력자의 인기로 종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 권력자의 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성과이다. 거버넌스의 질도 현 권력자의 인기에 반영될 수 있겠지만 부패의 만연과 씨족정치로 대변되는 유라시아 국가들의 비공식 구조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구조화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보다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변수로 분리하였다.

한편 '도구' 관련 변수로는 국제사회 연계, 현 정부의 능력, 그리고 반정부 세력 또는 야당과 집권독재 엘리트 간의 권력균형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범위적 통합변수로 이미 알렉산더(Alexander, 2003), 레비츠키와 웨이

감하다. 이런 개념과 체제변화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는 Chehabi and Linz(1998) 참조.

〈그림 2〉 유라시아 민주화의 통합적 설명모형



(Levitsky and Way, 2006) 등이 국가 능력, 야당 구조, 국제영향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알렉산더는 남동유럽의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가 실패가 민주주의 발전에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높은 국가 능력과 낮은 국가 능력 모두 민주주의의 퇴행을 결과한다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개혁 집행을 원하는지 여부가 민주화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현 정부의 능력과 관련해서 유라시아 민주화 설명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자원저주이다. 자원의 정치적 지대(rent)가 현 정부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저주에 관한 문헌들은 석유지대가 권위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치변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Ross, 2001). 자원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보와(Carles Boix)는 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이상인 국가에서는 성공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예가 없다고 주장한다(Boix, 2004: 85). 로스(Michael L.

Ross)는 석유가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구체적인 세 가지 효과를 제시한다. 첫째, 자원국은 더 큰 책임성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낮은 세율과 후견을 이용한다는 지대효과(rentier effect), 둘째, 자원 부는 정부가 내부 안보에 그들의 기금을 더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화를 느리게 한다는 억압효과(repression effect), 셋째, 석유와 광물 수출에 기초한 성장은 민주정부 형성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근대화 효과(modernization effect)이다(Ross, 1999). 이러한 전통적인 자원주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민주화의 희망이 적어 보인다. 정치지도자들은 재선과 권력유지를 위해 자원지대를 이용할 유인을 갖게 마련이다.<sup>6)</sup> 자원국가에서는 사회저항의 달래기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과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인상을 통한 인기영합적 체제유지에 석유 횡재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애셔(William Ascher)는 천연자원지대가 거버넌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국가가 인기 없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지대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Ascher, 1999). 또한 많은 학자들은 자원 부와 부패와의 상관관계를 주장한다(Bardhan, 1997).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색채혁명을 직접 ‘촉발’하게 한 요인은 부정선거였다. 국민들의 집단적 정치행동을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유발시키는 것은 선거이다. 또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발시키는 대중운동의 조직력은 저항운동 촉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학생운동은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세르비아(Serbia)의

6) 로빈슨 등은 후견(patronage)의 자원으로서 지대의 이용을 강조한다. 특정 계층 보호나 보조금으로 지대가 사용되면 현상유지에 기득권을 가진 사회계층을 발생시키는데, 남미 경험 연구들은 이러한 보조금과 보호의 수혜자들이 개혁저항의 주요 집단이 된다고 주장한다(Robinson and Torvik et al., 2002).

OTPOR(Отпор!), 그루지야의 KMARA(ქმარა), 우크라이나의 PORA(Пора!)는 색채혁명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IV. 색채혁명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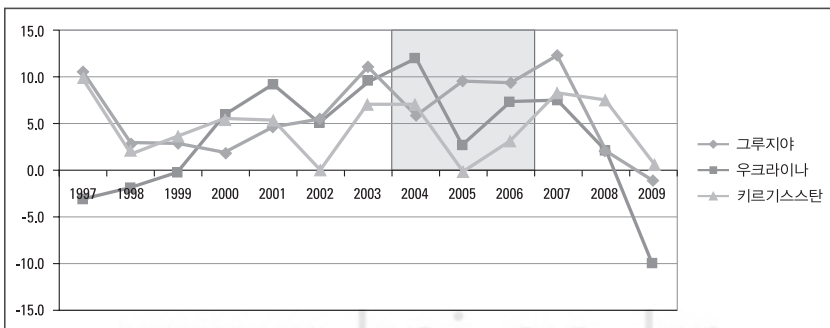
색채혁명의 확산 효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많은 서구 학자들은 색채혁명의 원인을 밝히고자 연구하였다. 맥폴(Michael McFaul)은 민주적 돌파를 가져올 수 있는 7가지 요인으로 반독재적 체제, 인기 없는 현 권력자, 독립적인 선거감시 능력, 독립적 언론, 대중 동원, 권력기관들의 분열 등을 제시한다(McFaul, 2005). 한편 라드니츠(Scott Radnitz)는 키르기스스탄의 톨립혁명의 발생 원인으로 지역주의(localism), 부패, 경제적 성장통(growth pains) 등을 혁명 발생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Radnitz, 2006). 카라트니크(Andrian Karatnycky)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의 발생요인을 정상적인 시장 거래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제환경과 씨족 등의 비공식적 관계에 의한 정치구조에 기인된 엘리트층의 부패라는 사회환경 속에서 서구 지원에 의한 시민사회의 발달과 글라스노스트(개방, ГЛАСНОСТЬ(glasnost)) 세대의 성장, 중산층의 성장, 미디어의 발달에 의한 엘리트 부패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가 높아진 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Karatnycky, 2005). 튜도로유(Theodor Tudoroiu)는 장미혁명, 오렌지혁명, 톨립혁명은 5가지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적당히 권위적인 체제의 존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배엘리트 내의 분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국민의 불만, 권위주의체제들의 정당성 상실 등을 혁명 발생의 공통적 요인으로 지적한다(Tudoroiu, 2007). 웨이는 레비츠키의 경쟁적 권위주의체제 연구에 기초해서, 유라시아 국가 중 일부는 권위주의 지배를 공고화한 반면 다른 국가들의 실패를 설명하는 장기적 변수로 서구 연계의 강점 또는 약점과 국

가와 당의 능력 정도를 설정하면서, 이 변수들은 어떤 체제가 야당 도전에 가장 취약한가를 인지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였다(Way, 2008).

이러한 학자들의 제 견해를 고려하면서 앞 장에서 제시한 통합적 설명모형에 따라 색채혁명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따라 우선 추세에 관한 분석을 한다. 추세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혁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원인이 되며, 현 권력자의 인기를 좌우하게 된다. 우선 주목할 것은 경제적 성과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내듯 경제적 파탄이 유라시아 색채혁명의 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대에 들어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초반과 같은 파탄의 상황은 아니고 점진적 개선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4〉에서의 평화재단(Fund for Peace)의 실패국가 지수(Failed State Index)나 BTI 성과 지수(Management Index)를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루지야와 키르기스스탄은 국정운영의 성과가 낮은 편이고 정부의 개혁 정도를 나타내는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체제전환 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개혁성과가 낮은 편이다. 이상의 평가를 토대로 러시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색채혁명 발생국들은 정부 성과가 좋지 않았고, 이것이 당시 대통령(권력자)의 인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 색채혁명 발생국들의 실질 GDP 성장률



〈표 4〉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부 성과

	평화재단 실패국가 지수 (2005) <sup>1)</sup>	BTI 성과 지수 (2003) <sup>2)</sup>	EBRD 체제전환 지수 (2008) <sup>3)</sup>
러시아	83.5	5.5	2.67
우크라이나	<b>88.8</b>	<b>5.1</b>	<b>2.33</b>
벨라루스	87.3	2.2	1.33
몰도바	82.5	3.3	2.33
그루지야	<b>82.2</b>	<b>2.3</b>	<b>2.33</b>
아르메니아	71.5	5.1	2.67
아제르바이잔	85.7	3.2	2.00
카자흐스탄	78.3	3.3	2.67
우즈베키스탄	93.2	1.5	1.67
키르기스스탄	<b>80.4</b>	<b>3.4</b>	<b>1.67</b>
타지키스탄	86.7	3.3	1.33
투르크메니스탄	76.5	1.0	1.00

- 주: 1) 평화재단의 실패국가 지수는 사회 지표 4개, 경제 지표 2개, 정치 지표 6개 등 총 12개의 지표로 각 지표당 10점 만점에 총점은 1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함. 여기서 그루지야, 몰도바, 아르메니아는 2006년 점수임.  
 2) BTI 성과 지수는 국제협력, 합의도출, 자원효율, 조정능력 등 4개 지표로 측정하며 1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임. 여기에서 7.20 이상은 성공적, 6.20 이상은 약점을 가진 성공적, 4.89 이상은 중간, 3.82 이상은 약함, 2.24 이상은 실패국가임을 의미함.  
 3) 1에서 4점으로 평가하며 +0.33, -0.33 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임.

권력자의 인기와 관련해서 참작해야 할 상황은 레임덕 현상의 존재 여부이다. 레임덕은 권력교체의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사실상의 세습적 성격이 강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강한 현 권력자 능력을 가졌었던 러시아, 체제 안정성을 유지했던 벨라루스 등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적었고,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몰도바와 같이 지역주의로 인해 대선의 불확실성이 컸던 국가에서는 현 권력자의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도구에 관한 분석으로 먼저 현 정부의 능력은 강압기구와 당 기구의 강건성 및 자원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정부의 강압능력은 과거 소비에트체제나 군사적 갈등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경우 소련의 거대한 정보 안보기구를 물려받았고, 설립도 외부와의 갈등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응집성이 매우 강하다. 최근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르메니아의 경우 역시 그렇다. 몰도바, 그루지야처럼 약한 국가기구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인 국가 능력 구축 작업을 처음부터 해야만 한다. 강한 여당도 동원과 갈등의 시기에 뿌리를 둔다. 유라시아처럼 탈냉전 후 등장한 현 권력자들이 강한 정당을 물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여당은 약하다. 한편 석유 자원을 가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현 권력자 능력은 매우 강하며, 이들 국가에서의 민주화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국제사회와의 연계는 색채혁명 확산론과 관련하여 색채혁명의 설명에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및 서구와의 강한 연계 또는 밀접적인 경제·정치·사회적 연계는 서구 국가들이 체제변화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의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권위주의 공고화에 큰 장애를 만든다(Levitsky and Way, 2005: 20-24). 중남부유럽에서처럼 연계가 높은 곳에서는 어떤 권위주의체제도 생존하지 못했다. 반면 유라시아처럼 상대적으로 연계가 낮은 곳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서구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유라시아에서 비민주적 정부 또는 그들의 선택된 승계자들의 거의 절반이 1992년 이래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라시아에서 권위주의의 성공 또는 실패는 상대적으로 국내 요인들에 달려 있다고 볼 것이다. 최근의 탈공산주의혁명 연구자들은 모든 경우에서 외국 선거 감시자 존재와 국내 시민사회 집단에 대한 서구의 지원을 강조하지만, 유라시아에서는 이러한 서구의 신호에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1993년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민주적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Romania)에게 EU 가입의 전망을 제공했고, EU 가입의 전망은 엄격한 민주적 조건으로 독재 지배의 유지나 발전에 큰 장애를 만들었다(Vachudova, 2005). 국제사회와의 연계와 관

런해서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색채혁명에서 가장 실제적인 촉발요인이 되었던 학생운동이다.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그리고 2006년 벨라루스의 데님혁명으로 대표되는 CIS 동유럽 지역의 민주화 물결에서 각 국의 학생운동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MARA, PORA, 벨라루스의 ZUBR(ЗУБР)는 세르비아의 OTPOR 학생운동을 모델로 했던 만큼 그 수평적 조직구조와 비폭력 시위방법 등에서 다소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OTPOR와 교육 및 훈련 등에서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서구 지원에 기초한 학생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장미혁명 이후 KMARA는 그들의 혁명이 서방의 자금지원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인가”라는 국민들의 의문에 부딪히게 됐다. 오렌지혁명 동안 단합된 모습으로 전 국민의 민주화 참여를 이끌어 낸 PORA도 이후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당으로 출범한 Yellow PORA는 비정치 참여를 추구했던 학생운동단체 PORA의 원칙에서 벗어나 그 본질이 크게 변한 것이다.

서구와의 국제적 연계 정도가 클수록 민주화의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서구가 그 국가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레버리지는 경제적 국제화를 통한 경제 연계성이 강화되면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의 KOF(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산하 기업사이클연구소) 국제화 지수(Index of Globalization)를 통해 국제연계의 정도와 서구의 레버리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다. 경제적 국제화 지수를 보면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등 색채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 국가들에 대한 서구의 레버리지는 강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간 권력균형은 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제엘리트와 새로운 도전엘리트들 간 권력균형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구체제엘리트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

〈표 5〉 유라시아 국가들의 KOF 국제화 지수(2003, 2009년)

	세계화 지수		경제적 국제화		사회적 국제화		정치적 국제화	
	2009	2003	2009	2003	2009	2003	2009	2003
러시아	65.24	67.26	57.04	54.76	61.89	69.91	84.60	82.24
우크라이나	<b>69.30</b>	<b>62.10</b>	<b>61.93</b>	<b>53.28</b>	<b>68.40</b>	<b>59.13</b>	<b>83.14</b>	<b>70.98</b>
벨라루스	53.46	48.91	42.56	43.17	71.16	60.56	41.85	39.06
몰도바	65.20	59.07	72.31	68.57	65.96	57.74	53.69	46.98
그루지야	<b>60.01</b>	<b>51.63</b>	<b>69.43</b>	<b>60.59</b>	<b>58.94</b>	<b>50.59</b>	<b>46.08</b>	<b>39.87</b>
아르메니아	61.19	50.58	69.11	65.64	61.56	42.94	47.36	40.01
아제르바이잔	57.37	55.37	62.16	65.33	55.31	50.94	52.82	50.91
카자흐스탄	63.18	68.95	73.98	71.40	61.52	45.20	47.92	46.13
우즈베키스탄	-	37.00	-	-	-	34.71	42.80	40.64
키르기스스탄	<b>60.64</b>	<b>51.50</b>	<b>60.17</b>	<b>60.50</b>	<b>57.60</b>	<b>36.43</b>	<b>66.57</b>	<b>61.64</b>
타지키스탄	38.22	29.84	-	-	35.78	23.85	42.33	39.31
투르크메니스탄	-	37.54	-	-	53.88	37.57	37.29	37.50

출처: KOF

도바,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의 조직력 강도도 엘리트 권력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야당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석 비율의 경우 러시아는 옐친 2기를 기점으로 야당인 공산당의 의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색채혁명이 발생한 그루지야의 경우 장미혁명의 발단이 된 2004년 총선에서 다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인 국민운동당이 18.1%나 득표하였으며, 우크라이나도 2002년 총선에서 유셴코(Віктор Ющенко(Viktor Yushchenko))가 이끄는 ‘우리 우크라이나당(Наша Україна(People’s Union Our Ukraine))’이 23.6%를 획득하여 최대 의석당이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표화한 것이 〈표 6〉으로 이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의 경우 경제성도가 색채혁명의 직접적 원인이

〈표 6〉 색채혁명 직전의 유라시아 국가들 비교

	추세		도구						축발
	대통령 인기	레임덕	국제연계		현 정부 능력		엘리트 권력균형		
			국제연계	레버리지	정부 능력	자원 보유	권력 균형	야당 강도	
러시아	높음	없음	중간	낮음	낮음 → 높음	많음	불확실	약함	약함
우크라이나	낮음	있음	중간	중간	중간	적음	불확실	강함	강함
벨라루스	높음	없음	낮음	낮음	중간 → 높음	적음	구체제	약함	중간
몰도바	높음	없음	중간	높음	낮음 → 높음	적음	불확실	중간	중간
그루지야	낮음	있음	중간	높음	낮음	적음	불확실	강함	강함
아르메니아	높음	없음	중간	중간	높음	적음	도전자	약함	약함
아제르바이잔	낮음	있음	중간	중간	중간	적음	불확실	중간	약함
카자흐스탄	높음	없음	중간	높음	높음	많음	구체제	약함	약함
우즈베키스탄	높음	없음	낮음	낮음	높음	많음	구체제	약함	약함
키르기스스탄	낮음	있음	중간	중간	중간	적음	구체제	강함	강함
타지키스탄	높음	없음	낮음	낮음	중간	적음	불확실	약함	약함
투르크메니스탄	높음	없음	낮음	낮음	높음	많음	구체제	약함	약함

된 것은 아니다. 둘째, 비공식 구조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민주화의 설명변수로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공통된 소비에트 유산을 가진 유라시아 개별 국가들의 민주화 가능성 판별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체제의 현 권력자가 인기가 매우 없고 레임덕 현상에 직면해야 색채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자원저주 현상은 유라시아 민주화에 매우 설명력이 큰 변수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 반체제세력이 대중과 외국의 지지에 의해 힘을 얻어야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여섯째, 혁명은 반드시 이념적일 필요는 없으며, 국가 통합, 자유, 민주주의, 경제발전 등 다양한 가치가 모두 가능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커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반체제세력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외국에 의해 지지되는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평에 의해 동기부여되어야 한다. 여덟째, 체

제가 권위적일수록 민주화의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아니다. 반독재 또는 경쟁적 권위체제가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빛나가게 해서 순수 민주화를 더 방해할 수 있다.

## V. 결론

세르비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의 혁명 사례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세 경우에 체제변화의 촉발은 전쟁, 경제위기, 지배엘리트 사이의 분열, 외부 충격 또는 국제요인, 독재자의 사망이 아니라 부정선거였다. 둘째, 혁명 주도자들은 정치적 게임규칙을 근본적으로 새로 쓰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주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헌법적 수단을 택했다. 셋째, 각 사례에서 도전자와 현 권력자가 한때 서로 정당성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권력경쟁을 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혁명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이들 국가들의 혁명적 상황은 대중폭동 없이 끝났다. 혁명 주도자들은 때로 초헌법적이었지만 대부분은 평화적 전략을 사용하면서 의식적으로 비폭력 원칙을 포용했다. 당시 권력자들이 언론인과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방송 폐쇄 등을 포함한 강압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군이나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씨족정치의 키르기스스탄은 정치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고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중폭동의 양상이 일부 나타나고 혁명 후 정치과정변화에 있어서 다른 색채혁명 국가들보다는 비민주적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색채혁명이 과연 유라시아 민주화 확산의 신호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색채혁명 후 도전자들은 일단 권력을 잡으면 동구와 달리 곧 이전 체제의 비민주적 패턴을 부활했다. 법치국가의 확립이나 경제개혁과 부패청산은 한낱 혁명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루지야는 사카쉬

빌리(მიხეილ სააკაშვილი(Mikheil Saakashvili)) 대통령의 보나파르티스트체제 만들기, 키르기스스탄은 혁명 맹우들과 공개적 갈등 돌입, 우크라이나는 과거 권위주의체제 지도자들과의 공생 승인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혁명이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민주적 정치시스템 내의 지배엘리트들의 제한된 로테이션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색채혁명 국가 국민의 민주주의 평가도 러시아와 그리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 7> 유라시아 국민의 민주주의 평가

(단위: %)

	합계	그루지야 (2008)	러시아 (2006)	몰도바 (2006)	우크라이나 (2006)
1 (전혀 민주적이지 않음)	12.1	11.2	14.5	6.2	15.0
2	8.1	6.7	8.3	5.0	13.4
3	14.9	16.4	16.0	11.0	14.7
4	13.7	14.7	11.3	15.6	15.0
5	21.0	<b>25.1</b>	<b>21.5</b>	<b>19.6</b>	<b>15.3</b>
6	12.3	11.5	10.9	16.4	11.7
7	9.2	8.2	8.8	13.8	6.4
8	5.4	4.4	5.2	8.8	3.6
9	1.6	0.6	2.1	2.2	1.5
10 (완전히 민주적)	1.6	1.1	1.3	1.4	3.4
평균	4.5	4.4	4.3	5.1	4.1

출처: World Value Survey

유라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적 접근이나 행위자적 접근은 통합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이나 사회자본을 강조하는 구조적 접근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소비에트 역사와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점에

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요인의 차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행위자적 접근도 그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의 경우는 동구와 달리 구엘리트와 민주엘리트 사이의 합의의 가능성이 없어 보임은 물론 진정한 경쟁이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조적 접근과 행위자적 접근의 통합 접근과 색채혁명의 추세-도구-축발모형의 결합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모형은 매우 유연성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조적 변수와 행위자적 변수가 매우 다양하며 유라시아의 상황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변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투 고 일: 2010년 1월 26일
- 심 사 일: 2010년 2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25일

## 참고문헌

- Aberg, Martin. 2000, "Putnam's Social Capital Theory Goes East: A Case Study of Western Ukraine and L'viv," *Europe-Asia Studies*, Vol. 52, No. 2: 295-317.
- Alexander, Marcus. 2003, "Authoritarian Resistance to Democratization: Comparative Evidence from Nine New Democracies in Southeastern Europe,"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August 31-September 3).
- Ascher, William. 1999, *Why Governments Waste Natural Resources: Policy Failures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ardhan, Pranab. 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5, No. 3: 1320-1346.
- Bogaards, Matthijs. 2004, "Defective Democracies: Towards an Integrated

- Framework of Democratic Hybrids,”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September 2-5).
- Boix, Carles. 2004, *Democracy and Redistrib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schken, Herman L. 1975, “The Logic of Protest Ac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28, No. 1: 59-71.
- Bunce, Valerie. 2003, “Rethinking Recent Democratization: Lessons from the Postcommunist Experience,” *World Politics*, Vol. 55, No. 2: 167-192.
- Chehabi, H. E. and Juan J. Linz. 1998,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hen, Baizhu and Yi Feng. 1999,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 Formal Model,” *Social Choice and Welfare*, Vol. 16, No. 1: 1-16.
- Colomer, Josep M. 2000, *Strategic Transitions: Game Theory and Democratiz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lton, Timothy J. and Michael McFaul. 2003, *Popular Choice and Managed Democracy: The Russian Elections of 1999 and 2000*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Crescenzi, Mark J. C. 1999, “Violence and Uncertainty in Transi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2: 192-212.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2: 21-35.
- Fish, M. Steven. 2006, “Stronger Legislatures, Stronger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Vol. 17, No. 1: 5-20.
- Fortin, Jessica. 2004, “Patterns of Democracy: Counter-Evidence from Sixteen Post-Communist Countries,”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September 2-5).
- Gates, Scott, Havard Hegre, Mark P. Jones, and Havard Strand. 2006, “Institutional Inconsistency and Political Instability: Polity Duration, 1800-2000,”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4: 893-908.

- Goldstone, Jack A., Robert H. Bates, Ted Robert Gurr, Michael Lustik, Monty G. Marshall, Jay Ulfelder, and Mark Woodward. 2005, "A Global Forecasting Model of Political Instability,"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September 1-4).
- Hale, Henry E. 2005, "Regime Cycles: Democracy, Autocracy, and Revolution in Post-Soviet Eurasia," *World Politics*, Vol. 58, No. 1: 133-165.
- Held, David. 1996,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 Huber, Evelyn, Dietrich Rueschemeyer, and John D. Stephens. 1993,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Democra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3: 71-85.
- Karatnycky, Andrian. 2005, "Ukraine's Orange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85, No. 2: 35-52.
- Kronenberg, Tobias. 2004,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in the Transition Economies," *The Economics of Transition*, Vol. 12, No. 3: 399-426.
- Kugler, Jacek and Yi Feng. 1999, "Explaining and Modeling Democratic Transition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2: 139-146.
- Kuran, Timur. 1991,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7-48.
- Levitsky, Steven and Lucan Way. 2002,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3, No. 2: 51-65.
- \_\_\_\_\_. 2005, "International Linkage and Democratiz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16, No. 3: 20-34.
- \_\_\_\_\_. 2006,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hiladelphia, August 31-September 3).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 1994,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Juan J. Linz and Arturo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87.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1959,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69-105.
- Mahoney, James and Richard Snyder. 1999, "Rethinking Agency and Structure in the Study of Regime Change,"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4, No. 2: 3-32.
- McFaul, Michael. 2001, *Russia's Unfinished Revolution: Political Change from Gorbachev to Putin*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Transitions from Postcommun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6, No. 3: 5-19.
- Nissen, Scott. 2006, "Understanding the Colored Revolutions: Successes and Failures in Popular Revolt," The 64th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 (Chicago, April 20-23).
- O'Donnell, Guillermo and Phillippe C. Schmitter.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lson, Mancur.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New Jersey: Harvard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Michael E. Alvarez, Jose Antonio Cheibub, and Fernando Limongi. 1996,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dnitz, Scott. 2006, "What Really Happened in Kyrgyzstan?" *Journal of Democracy*, Vol. 17, No. 2: 132-146.
- Robinson, James A., Ragnar Torvik, and Thierry Verdier. 2002, "Political Foun-

- dations of the Resource Curse," *CEPR Discussion Paper*, No. 3422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Robinson, Neil. 2003, "The Politics of Russia's Partial Democracy," *Political Studies Review*, Vol. 1, No. 2: 149-166.
- Ross, Michael L. 199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source Curse," *World Politics*, Vol. 51, No. 2: 297-322.
- \_\_\_\_\_. 2001, "Does Oil Hinder Democracy?" *World Politics*, Vol. 53, No. 3: 325-361.
- Rustow, Dankwart A. 1970, "Transitions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Comparative Politics*, Vol. 2, No. 3: 357-363.
- Rutland, Peter. 2004, "Russian Politics: Routine Maintenance for Managed Democracy," *Eurasia Daily Monitor*, Vol. 1, No. 24.
- Sartori, Giovanni. 1994,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2nd e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waminathan, Siddharth. 1999, "Time, Power, and Democratic Transi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2: 178-191.
- Tarrow, Sidney. 1998,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isman, Daniel. 2002, "Russia Renewed?" *Foreign Affairs*, Vol. 81, No. 6: 58-72.
- Tudoroiu, Theodor. 2007, "Rose, Orange, and Tulip: The Failed Post-Soviet Revolution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0, No. 3: 315-342.
- Vachudova, Milada Anna. 2005, *Europe Undivided: Democracy, Leverage, and Integration After Commun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antchekton, Leonard. 1999, "On the Nature of First Democratic Elec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3, No. 2: 245-258.
- Way, Lucan. 2008, "The Real Causes of the Color Revolutions," *Journal of Democracy*, Vol. 19, No. 3: 55-69.
- \_\_\_\_\_. 2009, "A Reply to My Critics," *Journal of Democracy*, Vol. 20, No. 1: 90-97.
- Wood, B. Dan and Alesha Doan. 2003, "The Politics of Problem Definition: Applying and Testing Threshold Mod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4: 640-653.

World Economic Forum. 200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Geneva: World Economic Forum).

KOF, "KOF Index of Globalization," <http://globalization.kof.ethz.ch/>.

*World Value Survey*, <http://www.worldvaluessurvey.org/>.

**Abstract**

## **Democracy in Eurasia: Explaining Color Revolutions**

*Gu Ho Eom*

This study begins with raising following two questions. First, when an ‘imperfect democracy,’ a salient trait of Eurasian countries, has been stabilized into a non-democratic system in real politics, counting it as an incomplete or transitional democracy is not appropriate. Second, while the existing literature is broadly divided into ‘transitology’ based on agency approach and ‘modernization hypothesis’ from structural approach.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two seemingly irreconcilable streams should be bridged by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a synthetic theoretical model, because each approach respectively has its own pros and cons. Especially this study pays an attention to that explanations on collective action of revolution can be harmonized with theoretical framework of democratization, since democratic transitions in Eurasia were proceeded by revolutions rather than through pacts among the elites in Eastern Europ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urposes first, to diagnose and classify democratization in Eurasia by connecting the stage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features of political system, second, to develop a theoretical model, which can explain the process of color revolution, based on systematic reviews of the existing studies on democratization in Eurasia, and thirdly, to evaluate democratization and color revolution in Eurasia on the basis of the above theoretical model.

While the attempt of this study to combine structural approach, agency approach, and ‘Trend-Instrument-Trigger’ model for color revolution would be very meaningful, it should be noticed that this model has a great flexibility and expandibility. Since structure variables and agency variables are very multifarious and the situation in Eurasia is also quite changeable, there is a need to develop more appropriate explanatory variables through further experimental studies.

**Key words:** Eurasia, Russia, Democracy, Democratization, Color Revolution